

종돈 일반검정 사업 순조롭게 진행중

90개 농장에서 11,000두 신청!
8월 20일 현재 4,000두 검정 완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일반검정 사업이 본회의 주관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종돈업 등록에 필요한 보유 종돈의 활용가능 여부를 검사해 돼지의 자질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일반검정 사업은 지금까지 90개 농장에서 11,000두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숫자는 본회가 당초 계획한 10,000두보다 10% 많은 숫자이다.

본회 종돈능력검정소는 지난 8월 초부터 전국의 각 지역을 순회하며 종돈의 일반검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8월 20일 현재 4,000여두의 종돈이 일반검정을 받았다. 8월 20일까지 일반검정을 받은 농장은 충남 18개 농장 1,880두, 경남 9개 농장 538두, 충북 4개 농장 1,231두, 경북 4개 농장 222두, 강원 2개 농장 59두 등이다. 이중 선진축산(SPF농장)이 1,121두를 신청해 가장 많은 두수를 검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 종돈능력검정소는 10월말까지 각 지역을 순회하며 일반검정을 마칠 계획으로 있다.

현재 일반검정방법은 서류심사와 개체확인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서류심사시에는 종돈등록증과 혈통등록증, 본등록을 실제 농장에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상기 등록증과 신청돼지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개체확인을 한다. 개체확인 때에는 그 개체의 이표번호와 품종고유의 특징, 질병 및 위

생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

그밖에 종돈능력검정소는 일반검정 시행때 그 농장의 위생 및 방역상태를 체크하는데, 예를들면 정문에 발판·차량 소독조와 인체·차량소독장치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 돈사 출입구 소독장치 보유 여부등을 알아보고 있다.

검정소는 이상의 체크 상황을 살펴보고 이상이 없는 개체에 한하여 현지에서 즉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여 종돈 일반검정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현재까지 일반검정을 시행하며 나타난 결과는 농장에 따라 종돈업을 등록한 상황과 실제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설과 방역상태가 엉망인 경우도 많으며 종돈관리 인력의 전문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와 협회에서는 종돈업 등록 종돈장이 일반 양돈장에 많은 양의 종돈을 판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철저한 일반검정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즈음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반검정사업에 대한 일부 회의론은 일반검정 사업의 본래의 취지를 잘못 인식한데서 오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전양돈인은 일반검정사업이 순조롭게 제도로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